

색감정보 디자인에서 심리적 특성과 선호컬러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디자인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referred Colors in Colors Emotional Information

– With focus on trainees for vocational capability development in design field –

김숙기

대구디지털디자인교육센터

Kim sug-ki

Daegu digital design education center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관련 연구

- 2-1. 색감정보의 이론적 배경
- 2-2. 성격 유형별 심리적 특성
- 2-3. 색채심리와 선호컬러

3. 색감정보 모형의 분석

- 3-1. 색감정보 모델링 및 기초분석
- 3-2. 선호컬러와 심리기능의 분석 및 결과
- 3-3. 선호컬러와 태도지표의 분석 및 결과

4. 결론

- 4-1. 결과 요약
- 4-2.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참고문헌

논문요약

인간의 의식·무의식의 사고와 행동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으로 맞춤형의 감성정보 디자인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현실에 적용가능한 개인의 감성정보 중에서 시각적 인지가 높은 색채 정보와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구성되는 색감정보는 개인마다의 상황을 이해하고 실행가능한 행동과 사고의 지표로 가치화시킬 수 있으므로 용의 심리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MBTI 성격유형검사와 하워드 선과 도로시 선의 CRR 색채심리검사를 통해 심리적 특성과 선호컬러의 분석 지표로 맞춤형 색감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간의 주요활동을 지표로 구성된 MBTI의 유형을 행동과 정서·심리적 측면에서 응용가능한 심리와 태도로 분류하고 CRR 검사를 통해 개인마다의 심리상태를 선호컬러 순서에 따라 지니는 의미를 해석하여 색채와 심리적 특성을 빈도분석과 대응분석을 통해서 상관성을 분석하고 지속발전가능한 개인의 색감정보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실험대상의 모집단은 자신의 현재를 이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유연성 있게 대응해야할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을 표본 조사하여 사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과 개인의 상황정보가 반영되는 콘텍스트디자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융합되어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한 행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서적·육체적·심리적 균형을 조화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색감정보 디자인방법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색감정보, 색채심리, 성격유형

Abstract

We propose custom design model of emotional information as the way to give an impact on inducing thought and behavior positively from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of human being. Especially, color information that has high visual recognition and the information of the color of sense that consists of person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personal emotional information available for being applied to the reality, can be valued by the index of thought and workable behavior from the understanding of individual situation. Therefore, it can consist of custom information of the color of sense by analysis index of preference color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rough CRR color psychological test by Howard & Dorothy Sun and MBTI character type test based on Jung's psychological theory.

Accordingly, we divided MBTI types, which are made of the index of the main behaviors of human being, into applicable mentality and attitude in behavior and emotional psychological sides, and analyzed the meaning followed by the order of preference color for individual mental state through CRR test to analyze the correlation by correspondence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for color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reflect it on sustainabl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color of sense.

Sample survey to case study was made for the population of the trainees who participated in job capability development program to comprehend their present state and cope with the future flexib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suggesting guideline for color emotional design method possible to design with harmonious balance of emotional, physical, psychology so that context design in which this environment and individual situation information are reflected can respond flexibly to changing with integration, convergence in many fields.

Keyword

Color Emotional Information, Color Psychology, Psychological Typ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보는 환경과의 공존 속에서 접근의 용이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활패턴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인간생활의 커뮤니티의 형태를 다양하게 구성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감성정보의 전달방법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트렌드는 21세기의 디자인기술과 함께 감각기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정보들 중에서 색채정보 디자인은 명확하게 시야에 미치지 않는 인간의 심리까지 새로운 시각지대로 부각시켜 패턴화 될 수 있으며 육체적·정서적 균형의 미를 반영한 정보로 제공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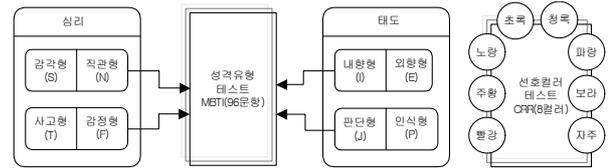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심리적 특성을 기초로 하는 색채정보를 인간의 감성과 의식무의식 속에서 다양한 유·무형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화될 수 있는 모델로 물리적인 측면에서 시각적 인지가 높은 색채를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반영하여 맞춤형 색감정보(color emotional information)로 제공될 수 있는 디자인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며, 제공될 수 있는 색감정보를 구조화하기 위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행태를 조화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이에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발전적 미래를 위해 개발해야 할 과제를 제공할 때 실제 그 실천을 기대할 수 있는 실험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모의실험을 바탕으로 분석된 결과를 진로상담의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함에 의의와 필요성이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복잡한 감성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사회문화적·정서적·심리적으로 인간의 행동 영역을 제한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지적 혼돈을 줄이기 위해 정보를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중심의 정보디자인에서 각인각색(各人各色)의 인간심리와 색채심리를 관련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 색감정보 모델링 방법을 제안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은 첫째,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유형화 할 수 있는 이론적 고찰로써 분석 심리학자 칼 융(C.G. Jung)의 이론을 기초로 하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성격유형 이론을 살펴보고 심리적 특성(심리적 기능과 태도의 지표)과 선호컬러와의 상관성을 대응 분석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구조화한다. 둘째, 하워드 선과 도로시 선(Hoard & Dorothy Sun)의 색채심리 검사인 CRR(Color Reflection

Reading, CRR) 분석법의 문헌 연구 고찰을 통해서 선호컬러의 의미를 개념화하고 색감정보로 구조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표본실험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분석한다. 또한 [그림1]과 같은 모형을 통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서 색감정보 디자인 방법의 모델을 제안한다.



[그림 1] 심리적 특성과 선호컬러의 상관성분석 모형

가설 1: 정보를 인식하는데 있어 심리적 기능은 선호컬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가설 2: 정보를 인식하는데 있어 태도지표는 선호컬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 관련 연구

2.1. 색감정보의 이론적 배경

인간의 감정은 몸 속 호르몬의 균형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색은 정신 활동을 자극하고 뇌하수체로 흘러가는 컬러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신진대사와 감정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색에 대해 반응을 보이고 색으로 기분을 전환한다고 볼 때 색과 마음의 관계를 개인의 컬러히스토리로서 분석하고 색채미를 생활환경에 적용한다면, 색은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측면에서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테라피적인 요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색은 인간에게 기분, 태도, 정신활동 그리고 육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온도, 무게, 거리감 등을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색채의 미적 효과로 색채 조화, 색채 선호도 등을 구별¹⁾할 수 있으므로 보편적인 색의 의미와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 의미를 잘 조화한다면 색을 사용하는 자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칼 융은 시각을 통해서 인지되는 색채의 지각에서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제한된 정보들로부터 의식 세계를 구성하고 무의식의 세계는 인간의 언어로 구체화 할 수 없는 객체들로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색채의 지각은 물리학적 측면에서 자연과학자들에 의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지만 심리학과 디자인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²⁾.

1) 김숙기, 「지능형감성정보시스템 디자인방법론에 관한연구」, 동서대학교 디자인&IT전문대학원 박사학위, 2007, p.50.

2.2. 성격 유형별 심리적 특성

인간의 태도 지표와 심리적 기능은 패턴 모색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칼 융은 심리적 특성을 일관된 유형으로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개별적인 정신의 독자성을 논의하지 않은 것은 각인각색의 개인차 묘사를 위한 것으로 고정된 유형으로 클러스터링 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고 보았다³⁾.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이분법의 MBTI는 자기 보고를 통해 개인이 선호하는 경향을 찾고, 선호 경향들이 조합되어서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마이어스(Isabel Myers)와 브리거(Katharine Briggs)에 의해서 개발된 4가지 지표와 8가지 선호지표로 구성되는 검사로 선호 유형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최적의 유형을 발달시키는데 있어서 더욱 중요함을 강조한다. [표1]은 서로 양극의 지표로 구성되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에 따라 선호 지표의 조합으로 결정되는 16가지의 유형(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P, ESTJ, ESFJ, ENFJ, ENTJ)으로 분류 된다⁴⁾. 이 유형들을 통해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심리적 기능과 태도지표, 기질별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다.

4 지표	8 지표	선호경향	주요활동
EI	E 외향형	에너지 방향(when)?	주의초점
	I 내향형		
SN	S 감각형	무엇을 인식하는가(what)?	인식기능
	N 직관형		
TF	T 사고형	어떻게 결정하는가(how)?	판단기능
	F 감정형		
JP	J 판단형	생활양식(style)?	생활양식
	P 인식형		

[표 1] MBTI 8가지 선호 지표⁵⁾

ISTJ	ISFJ	INFJ	INTJ	내성적, 개념적, 글로 표현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P	사교적, 활동적, 말과 행동적
ESTJ	ESFJ	ENFJ	ENTJ	

[표 2] 내향성(상)과 외향성(하)의 지표

[표2]의 지표는 주요활동에 따라 조합되는 유형으로 외향성(Extraversion)은 외부 세계로 에너지가 나아가려는 성향의 특징이 있으며 폭 넓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교적이며 활동적이며 정보에 대

한 표현에서는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려는 성향이 높다. 내향성(Introversion)은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침착하게 보이며 에너지가 자신의 내부 세계로 향하려는 관례적이고 보수적인 견해로 마음속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사용 하려는 경향이 있다.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P
ESTJ	ESFJ	ENFJ	ENTJ
현실적, 구체적, 전통적		창의적, 거시적, 상상력	

[표 3] 감각형(좌)과 직관형(우)의 지표

[표3]의 감각형과 직관형은 무엇을 인식하는가에 따라 분류되는 유형으로 정보수집의 인식기능에서 감각형(Sensing)은 정보의 수집에서 보고, 듣고, 만지는 등의 오감의 경험을 중요시하며,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는 반면에 직관형(iNtuition)은 어떤 사실이나 사건의 내포된 의미나 관계 또는 가능성을 더 잘 인식하기도 한다.

INTJ	ISTJ	ISFJ	INFJ
INTP	ISTP	ISFP	INFP
ENTP	ESTP	ESFP	ENFP
ENTJ	ESTJ	ESFJ	ENFJ
논리적, 경제적, 객관적		인간적, 총동적, 사교적	

[표 4] 사고형(좌)과 감정형(우)의 지표

ESTJ	ESFJ	ENFJ	ENTJ	계획적, 결과적, 규범적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모험적, 낙천적, 수용적
ESTP	ESFP	ENFP	ENTP	

[표 5] 판단형(상)과 인식형(하)의 지표

판단과 결정의 지표로 분류되는 [표4]의 사고형(Thinking)은 사실에 관점을 두고 원리와 원칙에 맞는 객관적인 정보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감정형(Feeling)은 인간관계에 관심을 두고 상황적포괄적으로 상황을 처리한다. [표5]의 지표는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분류되는 판단형(Judging)은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사고기능이 주기능으로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사전에 계획하여 처리하며, 인식형(Perceiving)은 항상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도전에 관심을 가지고 감각이나 직관을 주로 사용하며 계획으로 세운 목적과 방향이 처리 과정에서 변화가능 한 형이다. 심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 지표들은 앞으로도 인간의 행동을 인식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교육, 진로 선택 및 지도, 인간관계,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Gerda Smets, 「Time Expression of Red and Blu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29, 1969, p.138.

3) 류소, 『각인각색 심리 이야기』, 사군자, 2005, p.46.

4)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역, 『MBTI 개발과 활용』, 한국심리검사연구소, 2003, pp.17-22.

5)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역, Ibid., pp.1-2.

2.3. 색채심리와 선호컬러

색채에 대한 반응의 역사는 생물학적 생존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고대인에게는 상징적 의미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색채 표현 양식은 신비주의 및 삶과 죽음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시 시대부터 색채는 심리적으로 정형화된 감정적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심리적·생리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⁶⁾. 고대 이집트에서는 특정의 색을 몸에 두르도록 하거나, 신전에 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방을 이용하여 심신의 치유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색은 지구상에서 인간의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 중 적용성이 풍부하고 주목할 만한 활발한 요소로서 인간의 행동에 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색채관련 연구에서 뉴턴(Sir Isaac Newton)은 빛의 굴절률에 따라 색채 스펙트럼이 생성된다고 보는 물리학 기반의 색채로 발전시켰으며, 괴테(Goethe)의 색채론은 생태학적 측면에서 색채의 조화와 상징성에 대한 정서적 체험으로 오늘날 높이 평가되고 있다. 스에나가 타미오는 색채 심리를 교육과 멘탈케어 분야에서 활용하여 색채에 대한 심리적 성향의 특성을 분류하고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색채테라피를 자신의 체험과 타인의 이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색채심리의 관심은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와 건강과 관련된 아로마테라피, 뮤직테라피, 색채테라피 등 생물학·생리학·정신병학 등에 까지 미치는 효과들로 활발히 규명되어가고 있다. 색채를 이용한 정서 진단을 위해 맥스 러셔(Max Luscher, 1969)는 컬러테스트를 개발하여 순간 심리 상태를 자신의 개성으로 나타내었으며⁷⁾, 이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색채 사용이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워드 선과 도로시 선은 색채를 치료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그 효과를 끌어내려면 명확한 색의 무지개색이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색으로 보고 보색의 색상환에 포함되는 여덟 가지 색(빨강, 주황, 노랑, 초록, 청록, 파랑, 보라, 자주)으로 구성된 CRR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여기서 CRR 분석을 위한 색채 심리검사에서 선택하는 선호컬러의 순서가 지니는 의미는 [표6]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선호컬러로 선택되는 색들은 순서대로 자신의 자아, 현재의 모습, 목표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 어떤 색을 어떤 순서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서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 혹은 조화롭지 못한 점들을 읽어내고 성격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밝혀지기도 한다.

색	순서	색의 의미
빨강	1	정열적이며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강한 지도력
	2	에너지조절, 인내심과 사랑의 노력이 필요
	3	현실적인 행동과 재충전 시간이 필요
주황	1	명량·낙천적이나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함
	2	활동적신체적 특징에 내적 자아 균형이 필요
	3	건설적인 행동과 깊은 생각, 신중함이 필요
노랑	1	이성논리평가에 강하며 유창한 표현력을 자랑
	2	현실적 인생의 에너지표현과 인내심이 필요
	3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개방을 위한 훈련이 필요
초록	1	균형의 추구와 심사숙고로 온화함과 진지함 발산
	2	합리주의 추구로 감정 표현의 노력이 필요
	3	편안한 느낌의 사람들과 어울림의 관계 만들기
청록	1	빠른 결단과 행동이 뛰어난 통찰력을 지님
	2	타인의 요구에 벗어나 침잠의 시간이 필요
	3	한번 해보자라는 도전 정신을 지니고 있음
파랑	1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안정된 에너지를 발산
	2	침묵·지식이 강점이며 자신 있는 표현이 필요
	3	두려움 없이 삶에 참여하고 반응할 줄 알아야 함
보라	1	위엄과 고상함을 지니며 표현력이 뛰어남
	2	타고난 리더, 자긍심부족과 피드백 인정이 필요
	3	타고난 창의성, 지혜의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함
자주	1	친절하고 온화하고 사려 깊은 사람
	2	주고받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음
	3	우월하다는 상상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과제

[표 6] 선호 순서에 따른 색의 의미⁸⁾

또한 검사결과로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이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으며, 균형이 어긋난 부분을 파악하여 그 결핍 상태가 육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 전에 적절한 피드백으로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⁹⁾.

3. 색감정보 모형의 분석

3.1. 색감정보 모델링 및 기초분석

모의실험을 위해 [그림2]와 같이 심리적 기능별 선호컬러와의 상관관계와 태도지표에 따른 선호컬러로 구성하고 색감정보로 모델링하기 위하여 MBTI G형(96문항)과 색채심리검사 CRR(8색)을 설문조사로 실시하여 연구 분석의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오프라인 형식으로 실시하여 설문지의 의미를 오해하고 회답해버리는 결과를 막아 회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모집단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의 75명을 모의실험의 표본으로 구성하여 피검자로부터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측정 결과를 추출하기 위해 두 설문간의 측정 기간(7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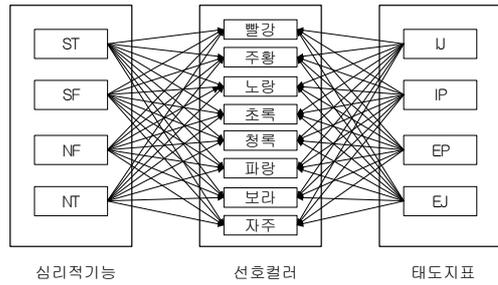
6) 파버비렌 지음, 김화중 옮김, 『색채심리』, 동국출판사, 2005, p.19.

7) 수지 치아자리 지음, 진현중 역, 『COLOR』, 전원문화사, 2002, p.194.

8) 하워드 선, 도로시 선지음, 나선숙 옮김, 『내 삶에 책을 읽히자』, 예경, 2003, pp.20-25.

9) 하워드 선, 도로시 선지음, 나선숙 옮김, Ibid., pp.37-64.

두고 실시하였으며, 두 종류의 설문에 모두 응답한 인원 53명(70.67%)의 설문결과를 유효한 표본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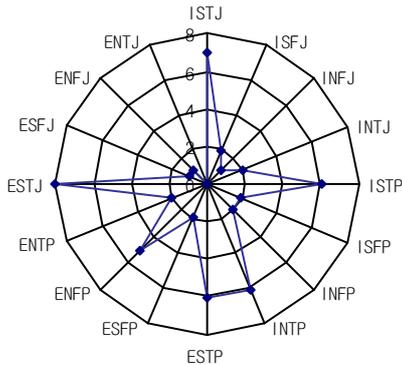


[그림 2] 색감정보 디자인 모델

모의실험의 표본은 훈련생들의 개인 인적 환경을 파악하여 진로상담 및 일상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맞춤형 색감 정보를 제공할 표본의 구성은 [표7]과 같이 여자 33명(62.26%)과 남자 20명(37.74%)이며, 연령별에서는 20~29세의 39명(73.6%)이 가장 많이 모의실험에 참여하였다.

설문대상	디자인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조사범위	연령	20-29세	39명(73.6%)	남자	20명(37.74%)	
		30-39세	13명(24.5%)			
		40세이상	1명(1.9%)			여자
조사기간	2008년 11월 03일 ~ 2008년 11월 12일					
표본 수	총 배포 : 75부 사용된 표본 : 53부(70.67%)					

[표 7] 모의실험의 표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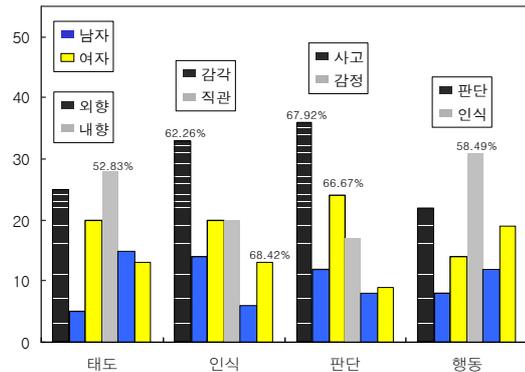


[그림 3] 설문결과 MBTI 유형별 분포도

한국심리검사연구소가 조사한바와 같이 한국인에게서 가장 많은 분포도를 차지하는 ISTJ(21.5%)와 ESTJ(14.2%)¹⁰⁾유형은 본 실험에서도 [그림3]에서 보여주는 응답자들의 전체 설문 응답자 53명중 ESTJ유형이 8명(15.09%), ISTJ유형이 7명(1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ENTJ는 설문응답자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의 4가지 선호 지표를

10)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역, Ibid., p.322

기준으로 분류되는 심리적 특성의 유형에서는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의 특성이 내향적(52.83%)이고 감각적(62.26%)인 사고(67.92%)와 인식력(58.49%)이 뚜렷하며 성별 분포도에서도 여성이 남자보다 직관형(68.42%)과 사고형(66.6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객관적인 분석력이 뛰어나며 물건과 사실을 다루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적응력 있는 내향형의 표본으로 구성된 성격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 MBTI 선호지표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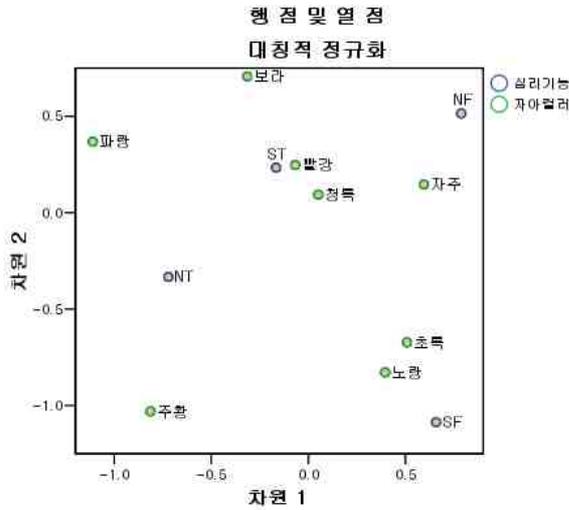
3.2. 선호컬러와 심리기능의 분석 및 결과

심리적 기능은 개인이 외부와 상호작용하는데 있어 고유한 반응방식을 지니게 하는 것으로 감각형의 사고형과 감정형, 직관형의 사고형과 감정형이 선호하는 컬러에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가설1: 정보를 인식하는데 있어 심리적 기능은 선호컬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심리적 특성과 선호컬러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PSS 1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대응분석,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대응분석은 패턴이 비슷한 회답자들로 분류할 수 있어 항목간의 관계 분석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위치에 있는 행과 열점수의 그래프를 통해 상관성을 시각화할 수 있다. 명목적으로 조사된 설문결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의 가설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통계자료(4×8 분할표)는 빈도수 5미만일 경우에 사용되는 카이제곱의 직접확률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으며, 검정에서 정확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의 수준을 보통 .05로 택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05에 기초하여 검증하였다.

3.2.1. 자아컬러와 심리기능

[그림5]는 심리적 기능에 따라 첫 번째 선호하는 컬러로 응답자 자신의 자아를 파악할 수 있는 대응분석 분포도에서 감각형의 사고형인 ST가 빨강(22.22%),

직관적이고 감정형의 NF는 자주(33.33%)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자아컬러와 심리기능의 대응분석 분포도

심리 기능	자아컬러								$\chi^2(p)$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청록	파랑	보라	자주		합계
ST	6 (22.22)	2 (7.41)	2 (7.41)	1 (3.7)	4 (14.81)	3 (11.11)	3 (11.11)	6 (22.22)	27	9.915* (.994)
SF	1 (14.29)	1 (14.29)	1 (14.29)	1 (14.29)	1 (14.29)	0	0	2 (28.57)	7	
NF	2 (22.22)	0	0	1 (11.11)	2 (22.22)	0	1 (11.11)	3 (33.33)	9	
NT	2 (20)	2 (20)	0	1 (10)	2 (20)	1 (10)	1 (10)	1 (10)	10	
합계	11	5	3	4	9	4	5	12	53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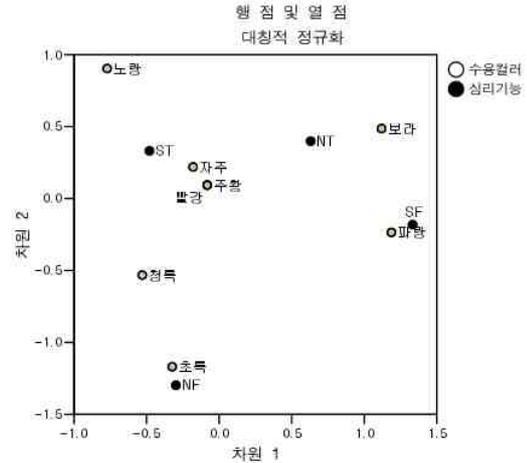
[표 8] 심리기능 유형별 자아선호컬러 대응일치표

정보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기능과 자아컬러의 상관성은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표8]의 결과로 확인 할 수 있다. 즉 자아컬러는 상황에 따라 다른 선호컬러로 선택되므로 개인의 맞춤형 정보로 색감정보를 모델링할 수 있다. 모의실험에서 추출된 색채심리 사례의 경우 개인에 따라 가장 마음에 드는 색으로 선택한 첫 번째 색에 반영된 개인의 본질 분석에서 빨강, 자주(22.22%)를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한 ST는 빨강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인 보다 정열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이런 성향은 논리와 감정의 조화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통찰력과 적용력이 뛰어난 NF가 난색계열의 자주를 선택한 경우는 타인에게 친절과 순수함을 지니고 있으며 타인과의 협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3.2.2. 수용컬러와 심리기능

두 번째 선택되는 선호컬러는 현재 개인의 육체

적·정신적·정서적인 면과 관련되는 것으로 컬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재 수용해야할 컬러이다. [그림6]의 대응분석 분포도에서 응답자가 수용해야할 컬러는 감각형의 사고형인 ST가 노랑(25.93%)을, NF가 초록(33.33%)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수용컬러와 심리기능의 대응분석 분포도

심리 기능	수용컬러								$\chi^2(p)$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청록	파랑	보라	자주		합계
ST	4 (14.81)	4 (14.81)	7 (25.93)	3 (11.11)	3 (11.11)	1 (3.7)	2 (7.41)	3 (11.11)	27	20.188* (.513)
SF	1 (14.29)	1 (14.29)	0	1 (14.29)	0	2 (28.57)	2 (28.57)	0	7	
NF	1 (11.11)	1 (11.11)	0	3 (33.33)	2 (22.22)	1 (11.11)	0	1 (11.11)	9	
NT	1 (10)	1 (10)	1 (10)	0	1 (10)	2 (20)	2 (20)	2 (20)	10	
합계	7	7	8	7	6	6	6	6	53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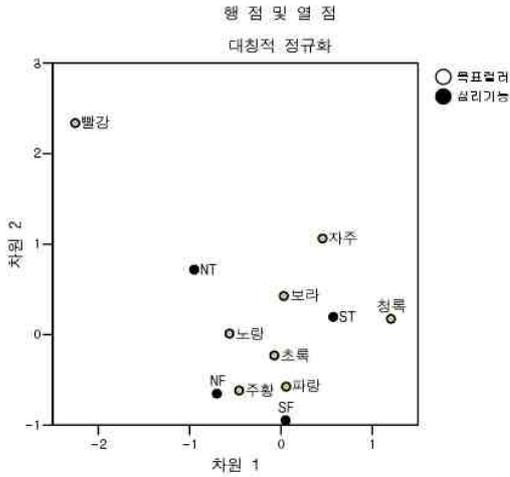
[표 9] 심리기능 유형별 수용선호컬러 대응일치표

심리적 기능과 수용컬러의 상관성은 정보 인식에 있어서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표9]의 결과로 확인 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ST가 난색계열의 노랑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꿈과 상상력이 현실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노력과 인내가 요구된다. NF가 중성색인 초록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하다가 현실에서 감정을 억누르려는 성향으로 위협감과 불안감, 불공평함을 남길 수 있으므로 좀 더 감정을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2.3. 목표컬러와 심리기능

선호컬러로 선택되는 세 번째 컬러는 개인의 희망과 비전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행동들을 제시해준다. [그림7]에서 세 번째

선호하는 컬러로 응답자가 수용해야할 컬러는 ST가 한색계열의 청록(25.93%), 직관형의 NF와 NT가 노랑(33.33%, 30%)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목표컬러와 심리기능의 대응분석 분포도

심리 기능	목표컬러								$\chi^2(p)$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청록	파랑	보라	자주		
ST	0	2	4	5	7	3	3	3	27	16.592* (.810)
	(7.41)	(14.81)	(18.52)	(25.93)	(11.11)	(11.11)	(11.11)			
SF	0	1	1	2	1	2	0	0	7	
	(14.29)	(14.29)	(28.57)	(14.29)	(28.57)					
NF	0	2	3	2	0	1	1	0	9	
	(22.22)	(33.33)	(22.22)		(11.11)	(11.11)				
NT	1	1	3	2	0	1	1	1	10	
	(10)	(10)	(30)	(20)		(10)	(10)	(20)		
합계	1	6	11	11	8	7	5	4	53	

***P<.05

[표 10] 목표 선호컬러 대응일치표

[표10]의 도출결과에서 목표컬러는 심리적 기능과의 상관성에 유의수준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목표컬러는 상황에 따라 다른 선호컬러로 선택되므로 추출된 자료는 다양한 구성으로 사례분석을 할 수 있다. ST의 성향이 한색계열의 청록을 선택한 경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준비와 개인적인 성장과 개발을 위해 혼란과 불편함에 맞설 수 있는 도전적인 정신과 강인함을 엿볼 수 있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NT가 난색계열의 노랑을 선택한 경우에는 긍정적, 현실적으로 행동가능한 혼란이 요구되며 새롭고 발전적인 비전을 선호하고 지식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어서 지혜와 잠재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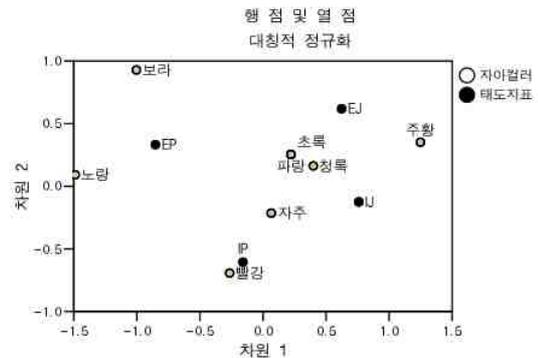
3.3. 선호컬러와 태도지표의 분석 및 결과

개인의 선호경향이 에너지의 방향과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행동 양식에 따라 진지함, 관조적, 활동적, 추진력 등으로 다르게 태도지표가 결정된다. 이런 지

표는 진지함의 성향을 나타내는 IJ, 관조형의 IP, 활동력이 강한 EP, 추진력이 뛰어난 EJ형으로 각 유형들을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각 지표가 선호컬러 선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가설(가설 2: 정보를 인식하는데 있어 태도지표는 선호컬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을 유의수준 $P<.05$ 에서 검증하였다.

3.3.1. 자아컬러와 태도지표

[그림8]의 대응분석 분포도에서 태도지표에 따라 내향형의 인식형인 IP가 빨강(31.25%)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빨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관찰하는 성향이 있다.



[그림 8] 자아컬러와 태도지표의 대응분석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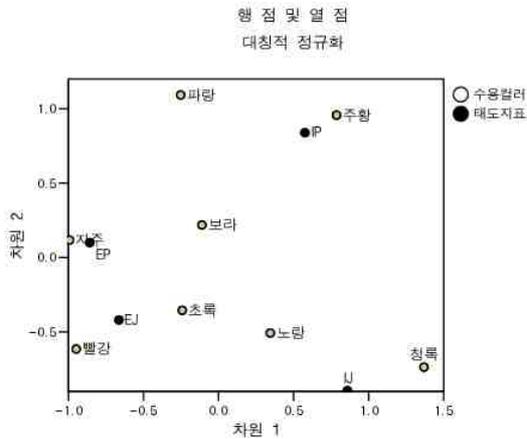
태도 지표	자아컬러								$\chi^2(p)$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청록	파랑	보라	자주		
IJ	2	2	0	1	3	1	0	3	12	12.083* (.937)
	(16.67)	(16.67)		(8.33)	(25)	(8.33)		(25)		
IP	5	1	1	1	2	1	1	4	16	
	(31.25)	(6.25)	(6.25)	(6.25)	(12.5)	(6.25)	(6.25)	(25)		
EP	3	0	2	1	2	1	3	3	15	
	(20)		(13.33)	(6.67)	(13.33)	(6.67)	(20)	(20)		
EJ	1	2	0	1	2	1	1	2	10	
	(10)	(20)		(10)	(20)	(10)	(10)	(20)		
합계	11	5	3	4	9	4	5	12	53	

***P<.05

[표 11] 자아선호컬러 대응일치표

[표11]의 도출결과에서 태도지표와 자아컬러와의 상관성은 유의수준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자아컬러는 상황에 따라 다른 선호컬러로 선택되므로 [표11]의 IP의 경우는 빨강(31.25%), 자주(25%)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육체적·감정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반면 결단력이 필요할 경우 논리와 감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난색 계열의 자주를 선택하는 IP는 타인에게 친절하고 사려가 깊은 사람으로 주위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지원을 발산하는 경우가 많다.

3.3.2. 수용컬러와 태도지표



[그림 9] 수용컬러와 태도지표의 대응분석 분포도

태도 지표	수용컬러								$\chi^2(p)$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청록	파랑	보라	자주		
IJ	1 (8.33)	1 (8.33)	3 (25)	2 (16.67)	4 (33.33)	0	1 (8.33)	0	12	30.044* (.079)
IP	0	5 (31.25)	2 (12.5)	1 (6.25)	2 (12.5)	3 (18.75)	2 (12.5)	1 (6.25)	16	
EP	3 (20)	0	1 (6.67)	3 (20)	0	3 (20)	2 (13.33)	3 (20)	15	
EJ	3 (30)	1 (10)	2 (20)	1 (10)	0	0	1 (10)	2 (20)	10	
합계	7	7	8	7	6	6	6	6	53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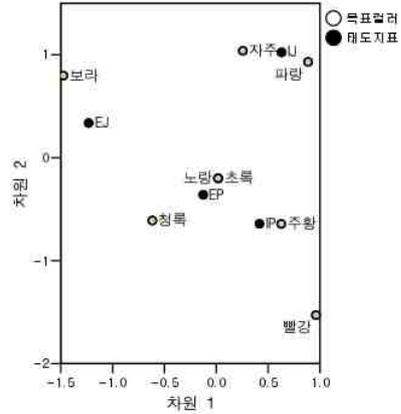
[표 12] 수용 선호컬러 대응일치표

[그림9]의 태도지표 대응분석 분포도에서 응답자가 수용해야할 컬러는 통찰력이 뛰어난 IP가 주황(31.25%)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도지표 측면에서 수용컬러와의 상관성에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표12]의 도출결과로 확인 할 수 있다. 즉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는 수용컬러는 다음과 같은 사례분석을 할 수 있다. 활동적인 특징의 빨강과 지혜롭고 표현력이 풍부한 노랑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는 주황은 확고한 주장을 가지고 있으나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노력과 내면적 자아를 의식하려는 의지와 자신을 통합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태도를 터득할 필요가 있다.

3.3.3. 목표컬러와 태도지표

태도지표의 유형이 세 번째 선호컬러로 선택되는 컬러는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행동들을 제시해준다. [그림10]의 대응분석 분포도에서 응답자가 수용해야할 컬러는 한색계열의 파랑(33.33%)을 IJ유형이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 점 및 열 점
대칭적 정규화



[그림 10] 목표컬러와 태도지표의 대응분석 분포도

태도 지표	목표컬러								$\chi^2(p)$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청록	파랑	보라	자주		
IJ	0 (8.33)	1 (8.33)	2 (16.67)	2 (16.67)	0	4 (33.33)	1 (8.33)	2 (16.67)	12	22.518* (.450)
IP	1 (6.25)	3 (18.75)	4 (25)	4 (25)	2 (12.5)	1 (6.25)	0	1 (6.25)	16	
EP	0 (13.33)	2 (20)	3 (20)	3 (26.67)	4 (13.33)	2 (6.67)	1	0	15	
EJ	0 (30)	0 (10)	2 (20)	2 (20)	2 (20)	0	3 (30)	1 (10)	10	
합계	1	6	11	11	8	7	5	4	53	

*** $p < .05$

[표 13] 목표 선호컬러 대응일치표

목표컬러는 정보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태도지표와의 상관성에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표13]의 도출결과로 확인 할 수 있다. 즉 목표컬러는 상황에 따라 다른 선호컬러로 선택되므로 개인의 맞춤형 정보로 색감정보를 모델링할 수 있다. [표13]과 같이 도출된 자료의 경우 목표컬러의 태도지표 중 파랑을 선호하는 IJ유형은 의사결정이 강한 과제지향적인 진지한 태도가 의사결정에서 통제와 조정의 기준이 된다. 이런 태도의 성향은 선호컬러 선택에서도 상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의실험을 통해서 추출된 자료의 경우 [표14]와 같은 사례로 구성하여 색감정보의 기초자료로 모델링 될 수 있다.

		심리적 특성			
목표 컬러	감각형	수용 컬러	감각형	자아 컬러	내향형
	ISTJ, ISTP, ESTP, ESTJ, ISFJ, ISFP, ESFP, ESFJ		ISTJ, ISTP, ESTP, ESTJ, ISFJ, ISFP, ESFP, ESFJ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청록	노랑	빨강	자주	
	도전적O 발전적O 단순한X	명석한O 환상적O 인내심X	적극적O 추진적O 전략적X	친절한O 헌신적O 통솔력X	

[표 14] 모의실험 표본의 선호컬러별 색감정보 예

표본으로부터 추출된 자료는 심리기능(감각형, 직관형)과 태도지표(내향형, 외향형)가 선호하는 컬러를 자아, 수용, 목표컬러로 추출할 수 있으며, 심리적 특성에 따라 선호컬러가 의미하는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고 자신의 컬러에너지로 반영하여 발전가능 한 형태로 실천해야할 사항들을 제안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향적이면서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있는 경우는 자아컬러로 빨강을 선호하는 사람들에서 볼 수 있고 이들은 논리와 감정의 균형 있는 에너지 조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자주를 자아컬러로 선택하는 사람은 친절하고 헌신적이며 주변의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성숙함을 지녔다. 노랑을 수용컬러로 선택하는 감각형은 꿈과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에너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인내심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목표컬러로 청록을 선택하는 감각형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게 될 경우 도전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변화를 성장과 발전적인 기대로 반영하므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도전 정신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4.1. 결과 요약

색채정보는 인간의 육체적·정서적·정신적 행동방식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격 유형별 심리적 특성과 색채심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색을 이해하고 그 에너지를 맞춤형 라이프스타일로 활용가능 한 색감정보 디자인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색감정보 연구 모델을 구성 설계하여 실험대상으로 자신의 자아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를 위해 바람직한 행동과 사고가 요구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생들을 표본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해 낼 수 있었다. 즉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선호컬러와의 상관성 분석에서 심리적 특성이 선호컬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가설이 유의한 것으로 검증($P < .05$) 되었으며, 개인의 환경과 상황정보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는 선호컬러와 심리적 특성은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한 형태로 대응할 수 있는 콘텍스트디자인의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 성장 가능한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들을 선호컬러의 선택순서에 따라 성격유형별 심리적 특성과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서 해석된 색감정보를 개인정보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인적 환경에 따라 진로설정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현재의 상황과 목표를 위해 앞

으로 어떤 변화가 전개되어야 하는지 해석해 낼 수 있다. 본 연구는 심리적 특성과 선호컬러의 공통된 특성을 개인의 컬러에너지로 모델링하여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조화로운 행태변화를 위한 색감 정보디자인 방법의 기초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할 수 있다.

4.2.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자신의 현재를 이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유연성 있게 대응해야할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을 모의실험의 표본으로 조사하고 사례 분석된 결과를 진로상담 및 지도를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하여 환경과 개인의 상황정보가 반영되는 콘텍스트디자인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연구를 통해 제기된 심리유형과 컬러가 의미하는 심리적 특성을 색감정보 디자인에서 다양한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하여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클러스터링되어 제공된다면 색채가 갖는 특성을 인간의 개인 삶 속에 심미적인 만족도와 함께 긍정적으로 매핑 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색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정서적·육체적 불균형의 에너지를 변환 시킬 수 있으므로 개인이 당면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혜로운 대응에 도움이 되는 수용 컬러에너지와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행동의 제시는 개인의 심리적 바탕으로 구성되는 색감정보로 색채테라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역, (2003), MBTI 개발과 활용,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하워드 선. 도로시 선 지음, 나선숙 옮김, (2003), 내 삶에 색을 입히자. 색채심리와 색채치료, 예경
- 류소, (2005), 각인각색 심리 이야기, 사군자
- 이부영, (1984), 분석심리학, 일조각
- 파버.비렌 지음, 김화중 옮김, (2005), 색채심리, 동국출판사
- 수지 치아자리 지음, 진현중 역, (2002), COLOR, 전원문화사
- 김숙기, (2007), 지능형감성정보시스템 디자인방법론에 관한연구, 동서대학교 디자인&IT전문대학원 박사학위
- Gerda Smets, (1969), Time Expression of Red and Blu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29